

2014

연구보고서-27

I S S U E P A P E R

성 평등한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추진기구간 역할

수행과제명 • 여성친화도시 조성 단계별 추진체계 연구
과제책임자 • 최유진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성 평등한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추진기구간 역할*

수행과제명  여성친화도시 조성 단계별 추진체계 연구

과제책임자  최유진 연구위원

 Tel: 02-3156-7127

 e-mail: connectj@kwdimail.re.kr

요약

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기구의 활동현황을 분석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에 적합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필요여건 및 지원 방안을 제안함.

1 배경 및 문제점

- 여성친화도시를 지역 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명명하고 추진한 지 5년이 경과됨. 지난 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는 양적으로 증가되었지만¹⁾,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시도가 지역사회에 성 주류화를 안착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최유진·문희영·김양희(2014). 여성친화도시 조성 단계별 추진체계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성 평등을 남성과 여성의 기회 균등으로 단순하게 인식하는 국내의 정책 환경은 여성친화도시를 젠더의 문제와 분리된 여자들을 위한 도시로 오인하게 했지만, 그간 추진과정에서 초기의 오해는 다소 완화되었음.
- 하지만 여성친화도시가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주목받지 못했거나 주류화 되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지역사회를 돌려주는 적절한 수단으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지속되고 있음.

■ 지역 정책의 성 주류화를 표방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크로스 커팅 이슈로서 젠더 문제를 행정이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기초자치단체에 여성정책을 자리 잡게 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계기로 여성정책 또는 여성친화 부서를 만들기는 했지만 부서 간 협력 체계,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성 주류화 전략을 확산하고, 여성의 임파워링 기제를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게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소수의 선진적인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여성정책 추진체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고, 여성·아동·가족이 하나의 정책 범주로 인식되어 여성가족과 또는 사회복지과 내에서 최소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임.

- 또한 상대적으로 역사가 오래된 관주도의 여성 동원 풍토(신경아, 2006:138)는 시민참여단의 활동이 여성 시민들의 목소리와 활동을

1) 2009년 여성(가족)부는 익산시와 여수시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시작으로 2010년 8개 지자체, 2011년 20개 지자체, 2012년 9개 지자체, 그리고 지난 2013년 11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2014년 현재 5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확대하는 수단으로 정착하게 하는 데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과 협력 체계 내에서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의 기획 및 평가 기능”,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참여를 통한 역량 증진과 지역사회 가시성 확대”,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성 주류화 정책 추진”에 대한 중요성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이미원 2009, 유희정 외 2010, 양애경 외 2011, 문유경 외 2012, 마경희 외 2013, 최유진 외, 2014).
-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핵심이라고 하는 연계·협력 과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핵심적인 추진 기구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와 연계·협력을 통해서 어떤 여성친화도시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진단해 보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결과

가. 여성친화지정도시 사업 운영체계 조사

-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가장 기본단위인 운영체계를 분석하였음. 운영 체계 분석에는 행정 내부 주무부서, 주무부서와 사업부서, 회의체 등의 구성 현황 및 운영 과정, 여성시민참여단 등의 위상, 구성 현황 및 주요 사업 추진 내용,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위원회, 자문단 등 여성친화도시 민관협력체 등의 위상, 구성 형태 및 주요 사업추진내용을 포함하였음.
- 이를 위해 50개 여성친화도시 내부자료 분석과 설문조사(‘여성친화도시 사업 참여 여건 및 장애 관련 관계자 조사’), 면접조사를 병행하였음.
- 관계자 조사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1〉 관계자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계	100.0	(814)	계	100.0	(814)
지정년도			역할		
2009년 지정도시	2.8	(23)	주무부서	10.8	(88)
2010년 지정도시	22.2	(181)	사업부서	51.0	(415)
2011년 지정도시	35.3	(287)	시민참여단	24.7	(201)
2012년 지정도시	8.2	(67)	조성협의체	13.5	(110)
2013년 지정도시	31.4	(256)			

- ▣ 첫째, 2014년 현재 50개 여성친화도시들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무부서란 이름으로 여성정책팀이나 여성친화팀을 공식적으로 만들고 있음.

 - 이들 중 여성친화팀 단위에서 모든 구성원이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는 6개 도시 뿐이지만, 여성친화도시업무와 성별영향 분석평가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이 배치되고 있고 여성정책팀 또는 여성친화팀 내에 시설직렬 직원을 포함하여 성 평등 정책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도 목격됨.
 - 무엇보다도, 성 평등 조성 조례 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전담부서의 역할을 “주민의견 수렴, 성 평등 교육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 실적 평가 및 정책반영”으로 규정하고 “관련 사업은 모든 부서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례는 포컬 포인트(focal point)로서의 역할 수행의 최소한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를 반영하듯, 전담 부서의 직무 규정에 사업 추진 시 여성친화적 요소 협의 및 조정이나 여성친화사업 확인 평가(총괄) 직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 행정 내에 성 평등 이슈를 다루는 포컬 포인트(focal point) 구성은 기획·조정 업무를 추진하는 여성정책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가하는 것임. 여성친화도시들 간에 편차는 있지만 여성정책팀이나 여성친화팀은 수십 개의 사업 부서를 모으고, 개별 부서 사업을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설득하거나 협조를 구하고, 시민참여단이 제기한 지역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부서가 사업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음.

- ▣ 둘째, 행정 내 협업 장치로써 여성친화도시 추진 TFT는 주로 사업별 주무·담당 회의의 성격으로 운영되거나 사무 전결처리규칙을 통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에 대한 TFT를 구성하여 여성친화거리 조성과 관련된 협의를 추진하기도 하고,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용역이나 5천만원 이상 공사와 1천만원 이상 행사 및 축제에 관한 계획 수립내용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시 결재라인에 여성친화업무 과장을 경유하도록 규정하여 추진하기도 함.
 -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이외에 제도화를 통해 추진되는 사례는 드물고 사업별 TFT나 자문 활동이 추진되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특히 도시공간 시설 등에 대한 여성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주무부서는 타 부서 사업의 여성친화적 개선을 지원하고 있음.
 - 물론,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경우에도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약 35%에 지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공무원들과 조성협의체 구성원들은 협업을 “여성친화도시 주요 추진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기능적인 이유에서 보다는 “사업을 보다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그런 점에서 협업을 의무사항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정책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주된 수단으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본 경험이 있는 주무부서와 사업부서 공무원은 모두 “역할 및 자원 분담, 책임소재 설정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는 반응이다. 또한,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 부족(23.2%)”, “공동목표 설정의 어려움(12.3%)”도 협업을 추진하는 어려움으로 지적됨.

〈표 2〉 부서 간 협업 추진 시 어려움

단위: 명, %

		사례수	공동목표 설정 어려움	자원, 책임소재 설정 어려움	정보 및 의사소통 부족	성과평가 문제	사업추진 부서 낮은 위상	기타	계
전체		220	12.3	37.3	23.2	10.9	10.9	5.5	100.0
역할	주무부서	66	13.6	31.8	19.7	9.1	22.7	3.0	100.0
	사업부서	154	11.7	39.6	24.7	11.7	5.8	6.5	100.0

주: $\chi^2=14.762*(p=0.011)$

자료: 여성친화도시 사업 참여 여건 및 장애 관련 관계자 조사

- ▣ 셋째, 민관협력 기구로써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구성하는 이유는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의견 수렴과 협의, 지역 고유의 특성에 기반한 사업 발굴, 지역 현안에 기반한 성평등 목표 설정 등을 지역사회와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간의 협업을 통해 추진하자는 문제의식에 기반함. 위원회는 사업 심의·의결기구이지만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는 관련 부서 및 기관, 전문가, 기업, 시의회, NGO 등 지역 내에서 여성친화도시조성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협력체로 사업을 기획·공동 추진하는 단위임.
- 이와 같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구성한 도시는 28개인데, 도시별로 평균 21.5명이 참여하고 있음.
 - 도시별로 구성인원과 분야의 편차가 다소 큼. 구성인원은 14명에서 69명까지 다양하며, 분야도 시민참여단이나 마을 조직 대표가

포함된 경우부터 전문가 중심으로 편성된 경우까지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 공무원 19.1%, 전문가 17.2%, 여성·시민단체 17.9%, 시민참여단·마을조직 36.6%, 공공기관 9.2%로 구성되어 있음.

- 여성친화도시조성 협의체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추진현황 보고 및 사례발표, 부서별 사업과제 내용 보완·수정에 대한 협의 등이 주로 추진되고 있고,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 관련 각종 보고회가 협의체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경우도 있으며, 분과위원회를 통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는 자신들의 주된 역할이 “의제발굴부터 사업추진, 사업평가의 전 과정에서 행정과 공동 협력하는 역할(61.8%)”이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행정의 인식도 상대적으로 높음.

〈표 3〉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주된 역할

단위: 명, %

	사례수	행정 및 시민대상 교육지원	사업 추진과정 컨설팅	사업 심의, 평가	의제발굴 부터 사업추진	기타	계	
전체	613	17.1	22.7	9.6	48.8	1.8	100.0	
역할	주무부서	88	17.0	12.5	11.4	59.1	-	100.0
	사업부서	415	15.9	27.7	10.6	43.1	2.7	100.0
	조성협의체	110	21.8	11.8	4.5	61.8	-	100.0

주: $\chi^2=33.504***(p=0.000)$

자료: 여성친화도시 사업 참여 여건 및 장애 관련 관계자 조사

- 흥미로운 결과 중의 하나는 사업부서 공무원들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전문가 그룹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27.7%)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임. 이를 반영하듯,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와 사업추진 부서

와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8.26점)의 동의를 보여주고 있음. 특히,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구성원들의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음.

〈표 4〉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와 행정 교류 필요성

		사례수	평균
전체		613	8.26
역할별	주무부서	88	8.58
	사업부서	415	7.87
	조성협의체	110	9.49

단위: 명, 점

주: 1. 1점(전혀 필요없음)↔10점(매우 필요함).

* p<.05, **p<.01, ***p<.001, F=32.997***

자료: 여성친화도시 사업 참여 여건 및 장애 관련 관계자 조사

- ▣ 넷째, 시민참여단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문화적 상황에 놓여있는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실행 그룹으로 활동하고 지역 환경과 공공 서비스 등에 대한 요구와 개입을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조직되고 있음.
- 현재 37개 여성친화도시에서 2,000여명의 시민참여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도시별로는 평균 60여명 수준이지만,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150여명에 이르기까지 지역별 편차가 큼. 전체적으로 주부 40.6%, 여성·시민 단체 구성원 21.5%, 각종 마을 조직 활동가 18.8%이고, 자영업이나 직장인이 10%, 학생 3.8%가 참여하고 있음.
- 11개의 도시가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사회 생활 불편 및 개선사항 발굴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한다는 소극적 역할 규정에서부터 시정 사업의 성인지적 개선 의견 제안과 마을단위사업을 추진한다는 적극적 역할 규정까지 다양함.
- 여성친화도시 사업 주체들은 시민참여단 주된 역할에 대해서 “의제발굴부터 사업추진, 사업평가의 전 과정에서 행정과 공동 협업(29.9%)”, “지역사회 생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단 역할(24.6%)”, “시

민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 역할(23.5%)”, “지역 여성의 요구를 행정에 건의하는 가교 역할(22.1%)” 등 현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활동 범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하지만 시민참여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와 주무부서 및 사업부서 공무원은 “의제발굴부터 사업추진,사업평가의 전 과정에서 행정과 공동 협업(각각 39.1%, 31.8%, 29.2%)”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정작 시민참여단 구성원들은 “지역사회 생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단 역할(29.9%)”을 주된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5〉 시민참여단 주된 역할

단위: 명, %

	사례수	역량 개발 위한 프로그램 참여	지역 여성 요구를 행정에 건의하는 가교	지역사회 생활환경 모니터링	의제발굴 부터 사업추진, 평가의 전 과정 행정협업	계	
전체	814	23.5	22.1	24.6	29.9	100.0	
역할	주무부서	88	22.7	19.3	26.1	31.8	100.0
	사업부서	415	27.0	20.7	23.1	29.2	100.0
	시민참여단	201	18.9	25.9	29.9	25.4	100.0
	조성협의체	110	19.1	22.7	19.1	39.1	100.0

자료: 여성친화도시 사업 참여 여건 및 장애 관련 관계자 조사

- 시민참여단 구성원들은 시민참여단 참여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시민의 낮은 참여율(40.3%)”과 “시민참여단 운영을 위한 예산, 정보공유 등의 행정적 지원 부족(32.3%)”을 지적하고 있음. 동시에 행정 역시 시민참여단 운영 과정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시민의 낮은 참여율(44.1%)”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시민참여단에 대한 역할 부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보임. 특히 시민의 참여율이 낮은 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주무부서 공무원들이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음(48.9%).

〈표 6〉 시민참여단 활동 중 어려움

단위: 명, %

	사례수	시민의 낮은 참여율	내부 시민간의 역량 차이	운영 프로그램 부재	행정적 지원 부족	기타	계
시민참여단	201	40.3	8.5	16.4	32.3	2.5	100.0
주무부서	88	48.9	21.6	9.1	18.2	2.3	100.0
사업부서	415	43.1	20.0	16.4	16.1	4.3	100.0

자료: 여성친화도시 사업 참여 여건 및 장애 관련 관계자 조사

나. 협업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 사례 조사

- 분야별 여성친화도시 사업 중 추진체계를 적절하게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례를 선정하여, 사업 운영체계과 지원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협업의 성공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조성 단계별 적정 사업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음
- 조사 분야, 대상지역 및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7〉 조사 대상지역

분야	지역	대상사업
일자리	익산시	여성친화 농촌마을 조성사업
공간	부산 사상구	소통과 쉽이 있는 여성친화공간 조성
안전	시흥시	안전지도제작 사업
공동체	광주 광산구	광산형 여성·가족 친화마을 지원사업

- 익산시 여성친화 농촌마을 조성 사업 사례는 여성친화도시 일자리 사업의 방향을 이해한 대표적 사례임. 다양하고 중층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 세부사업별 사업추진체계를 제대로 구성하였음. 사업운영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지원체계는 전문가 그룹의 컨설팅과 교육기획회의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여성친화 농촌마을 조성 사업운영체계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장되었음. 주무부서의 꾸준한 네트워크 활동의 결과 여성이장과 (사)농촌이민 여성센터가 참여하는 정례회의가 추진되었고, 사업 세부 추진 방법에 대해 협의할 수 있었음. 여성농업인단체와의 지속적인 회의도 한 사업의 내용을 채우는 데에 기여하였음.
 - 주무부서는 지속적인 지역 민간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여성농업인이 판로 확보와 여성의 마을 내 취약한 지위로 인해 여성의 대내외 네트워크 구성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여성 농업인의 실질적 권익 증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중층화 함. 이 과정에서 공동 경작지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의 현실성을 만드는 동력을 마련하였음.

- 사상구 여성친화 공간 조성사업은 행정 내 주무부서 역할과 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시민활동 구조가 제대로 조성되고 민관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추진체계의 성과 덕분에 기존 공간 조성사업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었음. 전문가들의 컨설팅과 여성친화일꾼을 사업 파트너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그리고 사상구 내 학습동아리의 활발한 활동은 사업 지원체계로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

 - 여성친화 공간 조성사업에서 주무부서는 행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상당한 공을 들였음. 녹지공원과, 교통행정과, 도시안전과, 건설과 계장급 회의를 통해 여성친화 공간 조성을 위한 의견수렴 회의를 진행하면서 협업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그렇기 때문에 녹지공원과·건축과·도시안전과·건설과는 설계용역 검토 및 공사감독을, 창조학습과는 우먼 라이브러리에 소장될 성평

등 도서 구입 및 관리를, 녹지공원과는 명품 가로공원과의 조화를 위해 적절한 식재를, 건축과는 우먼 라이브러리가 조성될 수 있는 가설건축물 건축에 따른 제반사항을, 도시안전과는 전기공작물 설치 등 전기사용 검토를, 건설과는 가설건축물 도로부지 내 점용가능 여부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주무부서가 구상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었음.

■ 시흥시 여성친화 안전지도 사업은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시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주무부서가 배출해 온 시민강사와 연계한 간담회, 기획회의를 통하여 추진동력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사업 지원체계의 연계 없이 사업을 추진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주무부서는 시흥교육청 교육행정지원팀과 시흥경찰서 아동여성계와 업무 협조를 추진하면서 교육청과 경찰서와 연계된 주민조직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광산구 마을 공동체 구성 사업은 여성리더를 중심으로 마을 내 인적자본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하고, 광산구 주무부서가 여성·친화마을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민간과 협력하고 행정내 관련 부서의 협력을 이끌어낸 사업임. 특히 광주여성재단·광산구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사업 지원체계가 탄탄하다는 추진체계의 특징이 있음.

● 대부분의 사업이 행정이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여성시민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형태인데, 광산구 마을 사업은 그 역할이 역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마을만들기 참여 여성리더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을 발굴하고 그들을 사업 추진체계로 조직함으로써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여성리더는 동사무소, 푸드뱅크, 투게더나눔문화재단, SK, 자율방범대 등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가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설

득하는 적극적 활동을 통해 사업 추진주체가 다각화 될 수 있었음.

- 광주여성재단, 광산구공익활동 지원센터 등의 풍부한 교육과 자치 활동(소모임 등) 육성 및 두 기관의 지속적인 컨설팅이 결합되어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성화됨. 두 기관은 각 마을만들기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진방향 및 방법이 적절한지, 향후 계획은 현실성이 있는지,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컨설팅을 지원하였음.

- 이상의 사업들은 사업을 주도한 주체와 수행 방식은 상이하지만 광범위한 협업이 발생하였고, 협업 주체간 자원 교환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을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업 주체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임.
- 익산시의 협업 동인은 여성 농업인의 판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였고, 사상구는 구체적인 공간을 염두에 두고 그 공간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이, 시흥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안전지도를 만들고 싶다는 요구가, 광산구는 마을 내 작은 도서관, 부녀회 등 자치활동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고 싶다는 요구가 협업 동인이 되었음.
- 즉 구체적인 문제 인식 또는 요구가 협력해야 할 대상을 선별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는 원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진 과정을 평가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사업을 시작할 당시의 목표나 요구가 적절히 달성되고 있는지를 반추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

〈표 8〉 사업 협업체계

		행정 및 공공기관	시민 참여단	민간 단체	전문가
여성 친화 농촌 마을	공동 텃밭 가꾸기	농촌지원과 생활자원담당, 농업기술센터		(사)농촌이민여성 센터 두리두레 영 농조합 법인, 여성 이장	두레농장 사업 전문가, 여성친화도시 컨설 턴트 상시 결합
	도농교류	주민차지과, 면사무소 총무계		생활개선회, 주부농 가모임, 한여농, 여 성 이장, 여성단체 협의회, 아파트부녀 회, 익산사랑 나눔 뜰(온라인 카페)	로컬 푸드 전문가, 여성친화도시 컨설 턴트 상시 결합
여성친화 공간 조성		창조학습과, 녹지공원과, 건축과, 도시안전과, 건설과, 과법동, 부산사상경찰서, 부산김해경전철	여성친화 일꾼	여성단체협의회	부산개발원, 부산 여성가족개발원, 관내 대학 도시 및 여성관련 전문가 (연구소), 여성친화 도시 컨설턴트
안전지도 사업		교통정책과, 도로과, 정보통신과, 공원관리과, 도시정책과, 시흥경찰서 시흥교육청, 초등학교		관내 초등학교 학 부모회, 어머니폴리 스회, 자율방범대	
마을 공동체 구성 사업		주무부서, 도서관과 동사무소		부녀회, 주민자치회, 상가, 입주민(원주민) 푸드뱅크, 투계더나 눔재단, SK, 자율방 범대,	광주여성재단, 광산 구공익활동 지원센터

3 정책제언

제언1) 조성 단계별 추진체계 구축

세부과제 1. 진입 및 정비 단계

▣ 행정

- 주무부서는 적어도 2명 이상이 업무를 분담하는 체계로 구성될 필요
 - 현재 1명이 여러 업무 중 하나의 업무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하는 도시가 50개 도시 중 42%에 해당됨. 이와 같은 직무 분장으로는 주무부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추진할 수 없음.

▣ 시민참여단

- 시민참여단의 구성은 기존의 조직을 활용할 수도 있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구성할 수 있는 등 지역 여건에 따른 구성 방법 필요
 - 시민참여단의 주된 사업은 주로 불편 사항을 건의하거나 개선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불편 사항을 건의하는 단순한 민원 활동은 굳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든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임. 개선 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이 필요함.

▣ 지역 내 자문단

- 진입 및 정비 단계에서는 협의와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기구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보다는 지역 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편이 적합.
 - 지역 내 전문가 자문단은 건의 기구로서 활용되어서는 곤란함. 많은 사람들보다는 기존 사업을 성인지 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함.
 - 컨설턴트를 포함할 수 있고, 여성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 있어

야 함. 여성의 요구란 민원형태의 요구라기보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목표에 대한 공유 정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세부과제 2. 사업 추진 단계

■ 행정

- 주무부서는 사업 추진 단계에서 다음의 두 가지 필수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 데, 이는 연계 체계의 기반이자 주무부서의 사업 성과를 측정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
- 첫 번째는 부서별 공통 지표에 주무부서로 컨설팅 의뢰와 컨설팅 결과의 반영여부를 핵심 지표로 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무부서의 성과 지표임.
 - 주무부서 성과 지표 역시 과제 건수, 주무부서가 기획하는 과제 추진율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향이 있음.
 - 하지만 사업 추진단계에서는 건수나 추진 보다는 주무부서의 기획·조정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체 추진 사업 건수 대비 컨설팅 실시 비율, TFT구성 및 운영 건수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시민참여단

- 모니터링으로 축적된 경험이 있는 시민참여단에게는 모니터링 역할을 확대시키는 학습 프로그램과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생활 여건에 대한 요구는 신체 취약자의 관점만으로는 종합적으로 제기되기 어렵기 때문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의 입장에서, 2명 이상의 아이를 키우는 직장 맘의 입장에서, 지역사회 공공시설 인프라가 취약한 거주지역에 사는 여성의 입장에서 등으로 다양하게 지역사회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함.

■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는 사업 추진 단계에서 구성되는 것이 사

- 업 기획과 추진 과정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표에 접근하기 용이함.
-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구성하기 이전에 진입 및 정비 단계에서 행정과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단체가 유관 사업들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각종 사업 간담회나 네트워크 구성이 전제되어야 함.
- 구성 이후에는 주무부서 및 사업담당자에 대한 지역 전문가 지원 풀로 활동할 수도 있고, 시민참여단과 함께 활동을 기획하는 추진단 형태로 활동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에 결합되어야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내에서 지역 내 사업 추진 현황과 성 평등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토론하고 제안할 수 있음.

세부과제 3. 사업 집약화 단계(5년차 이후)

-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부서별 또는 사업별 성 평등 지표가 고안되어 운영되어야 함.
-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서의 부서별 성 평등 지표는 좀 더 주류 사업에서 재원과 인력 할당의 융통성에 대한 행정 내 합의에 근거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행정의 성 평등 목표의 강화와 사업 분야 연계는 시민참여단 활동 활성화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의 협업 활동 강화에 근거하여 발전될 수 있음.
 - 이들은 여성의 안전, 주거나 교통 등에 대한 행정의 태스크 포스에 자문단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제언2) 여성친화도시 지원 체계 구축

세부과제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체계화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이슈를 반영한 조례 개정이 요청됨.
- 따라서 시민참여단 규정과 주무부서의 부서간 조정 업무, 여성친화

도시조성위원회의 시행계획 심의·의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구성 범위 확대와 기획과 사업 추진 지원 기능 등에 대한 역할 근거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9〉 조례 개선(안)

구분	조항	표준 조례(안)	개선(안)
민관 협력	제9조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여성 시민단체 활동가, 여성 주민의 협의체 참여 촉진 - 사업 발굴	- 구성에 여성기업인, 의회 포함 - 기획과 사업 추진 지원 부가
행정내 협력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	- 부서간 협업 활성화 명시
주무 부서	제11조 (여성정책담당 부서 설치)	-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증진	- 부서간 조정 업무 명시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 주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 - 공무원이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시민 교육 참여 부가
여성친화 도시 조성 위원회	제24조(기능)	-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 계획의 수립·시행 -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 양성평등정책 위원회 겸직 가능 조항 - 매년 시행계획 심의·의결 기능
		-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 중앙정부협력	
시민 참여단	신규		- 구성: 다양한 지역여성 참여 - 기능: 사업 발굴, 제안, 추진

세부과제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구체화

- ▣ 계획 수립이 현실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첫째,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 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은 해당 조시의 성 평등 여건을 충실히 진단하여 수립되어야 함.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 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에서 추진되는 조사는 만족도나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지도 보다는 생활권역별, 가족유형별, 또는 직업이나 노동시간 등의 생활여건의 차이에 따라서 지역사회 각종 프로그램의 인지, 이용여부 등의 실태 파악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 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과정을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음. 즉,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원 과제 발굴 워크숍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인프라 관련 개선 사업 발굴에 시민참여단의 조직화와 모니터링을 활용하는 등의 사업을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 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과정에서 병행할 필요가 있음.

세부과제 3. 여성친화도시 지원 사업의 전문화와 연계성 강화

-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체에 대한 심화 교육
 - 여성친화도시 참여 경험과 역할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공통 교육 과정은 여성친화도시 학교로 개편될 필요가 있음. 특히, 교육 내용과 방법과 관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초기에는 해외 사례를 활용한 여성친화도시 개념 및 조성 방법 관련 교육이 주로 추진되었으나 조성 주체에 대한 교육은 지금까지 발굴된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의의와 발전방향을 찾아나가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민참여단에서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거나 시민참여단에서 리더십 역할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는 여성친화도시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 정도의 내용을 심화시켜 시민참여단이 시설 인프라 이외의 공공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 확대 방안과 사례 중심의 토론, 시민참여단과 기존 마을 조직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시민참여단이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데에 이르는 활동 비전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에 대한 교육은 위원회 형태로 구성된 협의체보다는 공개 모집에 의해서 사업에 대한 공동 기획과 추진 지원의 역할을 추진한 도시부터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방식, 지역 전문가의 역할, 사업 사례 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컨설턴트 세분화

-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워크숍이 분기별로 정례화 되어서 여성친화도시 지원 사업들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이를 사업에 적용하는 방법 등이 심도 깊게 토론되어야 하고 사업 추진 지역 사례들을 교류하는 장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컨설턴트 활동이 연중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년 초에 사업 기획과 년도 별 시행계획 단계에서부터 평가 과정까지 안정적인 전문가 협업이 추진될 수 있음.

■ 이행점검, 우수 사업 발굴과 포상제도 연계

- 이행점검, 우수사업 발굴, 포상제도 간 연계를 통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은 이미 추진된 사업을 어떻게 개선하여 더 우수한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확산시킬 수 있음.
- 또한 여성친화도시 자체 평가서인 이행점검 실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도시를 당해연도의 포상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중 유공 포상자를 선정하는 것 또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공동협력사업 지원

- 공동협력 사업 추진 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지자체 또는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 협력 사업 추진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지원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세부과제 4. 여성친화 지정도시 네트워크 세분화와 연계

- ▣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지자체 간 협력 방안으로 정책 정보와 지식 공유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여성친화도시 조성 능력에는 전문가의 능력 뿐 만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행정당국의 자질, 수용성이 요청되며 자신과 이웃들의 요구를 제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이 요청됨.
- 따라서 실무자와 시민참여단 등의 상호학습을 촉진하는 기제가 필요함.

세부과제 5. 여성친화 지정도시 관련 메타 연구와 통합정보 사이트 운영

- ▣ 관련 사업에 대한 R&D 확장은 물론, 전문가 풀을 확산시켜야 할 과제가 있음.
- 관련 사업에 대한 R&D를 통해서 추진 기반 구축 단계 도시와 심화 과제 발굴 및 추진 단계의 도시에는 차별적인 교육과정, 컨설턴트 역량, 사업 가이드가 지원될 수 있음.
-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추진 주체들의 지난한 학습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간 발간된 여성친화도시 관련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통합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함.

4 기대효과

- ▣ 여성친화도시 조성 단계별 추진체계 제시를 통한 체계적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 및 지역의 성 주류화 전략 추진 기반 조성

- 광역·기초 간 사업 추진 체계화, 부서 간 정책 연계, 민관협력 조직 기반 확충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 활성화
- 실효성 있는 여성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 과정 구조화 및 지역 여성 성인지 정책 역량 증진 사업 발굴 기반 마련
- 여성친화도시 지원 사업의 전문화 및 연계성 강화를 통한 여성친화도시 사업 지속성 확보
- 여성친화도시 교육 및 컨설팅 가이드로 활용

참고자료

- 마경희 외(2013). 여성친화도시 이행현황분석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여성가족부
- 문유경 외(2012). 여성친화도시 점검지표 개발 및 이행현황 분석. 여성가족부
- 신경아(2006).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정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 페미니즘연구 제6호
- 양애경 외(2011). 여성친화지정도시 이행점검 연구 및 컨설팅. 여성가족부
- 유희정 외(2010).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연구. 여성가족부
- 이미원(2009).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발전방향. 여성가족부
- 최유진 외(2014). 2014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및 사업모델 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50개 여성친화도시 관련부서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50개 여성친화도시 관련부서